논어 14편 헌문 26장 · 원문·풀이

# 蘧伯玉使人於孔子，孔子與之坐而問焉。曰：「夫子何爲？」對曰：「夫子欲寡其過而未能也。」使者出。子曰：「使乎！使乎！」

독음 · 거백옥사인어공자 공자여지좌이문언 왈 부자하위 대왈 부자욕과기과이미능야 사자출 자왈 사호 사호

쉬운 풀이(요약) · 거백옥의 사자가 주인은 잘못을 줄이려 하지만 아직 다하지 못했다고 답하자, 공자는 주인의 뜻을 잘 전하는 사자라고 칭찬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蘧 패랭이꽃 거 거 / 伯 맏 백 백 / 玉 구슬 옥 옥 / 使 하여금 사 사

人 사람 인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孔 구멍 공 공 / 子 아들 자

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之 갈 지 / 坐 앉을 좌 좌 / 而 말이을 이

問 물을 문 문 / 焉 어찌 언 언 / 曰 가로 왈 / 夫 지아비 부 부

何 어찌 하 하 / 爲 할 위 / 對 마주볼 대 대 / 欲 욕심낼 욕 욕

寡 적을 과 과 / 其 그 기 / 過 지날 과 과 / 未 아닐 미 미

能 능할 능 능 / 也 어조사 야 / 者 놈 자 / 出 날 출 출

乎 어조사 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